

# 스포츠 경기의 영화화에 따른 담화전략 연구

—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중심으로—

박상민\* · 정수현\*\*

1. 연구 목적
2. 새로운 흥행 코드
3. 재현의 장애/강화 요소
4. 비주류 스포츠의 사회학
5. 결론

##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스포츠 경기를 소재로 제작된 영화의 담화전략 분석이다. 이는 ‘영화’와 ‘스포츠’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대중적 문화 양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작업이며, 나아가 이 둘의 결합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소재의 영화는 2002년부터 꾸준히 제작되었지만 대중적인 흥행코드를 정식화한 것은 2007년에 개봉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실화를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는 이전에 제작되었던 다른 스포츠 소재 영화들과 동일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별되는 담화전략을 펼쳤다. 즉,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비주류 스포츠 종목을 대상으로 했으며, 영웅적 인물의 성장이나 일대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복수(複數)의 주인공을 통해 각자의 일상적 사연을 중층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작품들과 구분된다.

이러한 담화전략은 인터넷과 케이블 TV 등 매체 환경의 변화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심리를 충족시켰으며, 나아가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고 불안해 하는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소외감을 위로할 수 있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후에 제작된 스포츠 소재 영화인 <킹콩을 들다>, <국가대표> 역시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중적 흥행을 담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담화전략의

\* 가톨릭대학교 교수

\*\* 연세대학교 강사

변화는 이전의 스포츠 소재 영화 속 주인공들이 개인의 영달을 목적으로 스포츠를 도구화했던 혐의에서 벗어나, 시청자와 함께 보고 즐기는 스포츠 정신 본연의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스포츠, 스포츠 영화, 담화전략,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비주류, 국가대표, 킹콩을 들다, 스포츠 정신)

## 1. 연구 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스포츠 경기를 소재로 제작된 영화의 담화전략) 분석이다. 이는 ‘영화’와 ‘스포츠’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대중적 문화 양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작업이며, 나아가 이 둘의 결합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주된 분석대상은 ‘2002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전 경기’(이하 ‘아테네 경기’로 통일)와 임순례 감독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7, 이하 <우생순>으로 통일)이며, 그 밖에 스포츠 소재 영화들과 실제 스포츠 경기들을 참고 텍스트로 한다. ‘아테네 경기’와 함께 <우생순>을 분석하는 것은 스포츠 경기의 영화화에 따른 담화전략을 살피는 데에 유용한 지표를 제공할 것이다. ‘아테네 경기’는 소위 말하는 ‘비주류 스포츠’였지만 ‘불굴의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로 많은 대중들에게 각인되었으며, <우생순>은 이를 영화화하여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sup>2)</sup>

- 
- 1) 이 글에서 ‘담화전략’이란 ‘사건에 대한 진술’을 뜻하는 시모어 채트먼의 ‘담화(discourse)’와 같은 의미이다. ‘전략’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은 ‘discourse’의 또 다른 번역어인 ‘담론’의 미셀 푸코식 의미, 즉 ‘권력을 생산하는 사회적 힘’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채트먼이 사용한 ‘discourse’의 번역어 역시 ‘담화’와 ‘담론’이 함께 사용되며, 크게 보면 채트먼과 푸코의 ‘discourse’는 ‘담론 주체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이지만, 최근의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채트먼의 ‘discourse’를 ‘담화’로 번역하여 푸코가 말하는 ‘담론’과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시모어 채트먼, 김정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 구조』, 민음사, 1989. 22-23쪽 참조)
  - 2) <우생순> 이후에 제작된 <킹콩을 들다>(2009), <국가대표>(2009) 등이

1980년대 이후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올림픽 경기 때마다 세계 최고의 전적을 보여주었지만, 대중적 관심이 미약했다.<sup>3)</sup>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2위로 밀려났던 대표팀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메달권 진입에 실패하면서 실업팀 일부가 해체되는 등 종목의 존립 자체에 위기를 맞는다. 하지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고, 이후 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면서 핸드볼 경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그 결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핸드볼 대표팀은 같은 시간대에 방영된 축구 경기나 그 밖의 TV 프로그램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sup>4)</sup> 이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녀 핸드볼 선수들이 보여준 기량과 열정에 대한 관람자나 시청자의 감정적 반응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에 공감과 감정이입으로 나타나 400만 명이라는 관람자를 형성시켰고, 형성된 팬십<sup>5)</sup>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핸드볼 중계를 시청하고자 하는 동기와 태도 및 재시청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sup>6)</sup>으로 풀이된다.

검증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비추어보면, 인상적인 스포츠 경기가

<우생순>과 유사한 담화전략을 통해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감동적인 비주류 스포츠 경기의 영화화는 우리 영화계의 중요한 흥행코드가 되었다.

- 3)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올림픽 수상 실적은 아래와 같다.  
1984년 LA 올림픽 2위, 1988년 서울 올림픽 1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우승,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2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위.
- 4) 베이징 올림픽에서 2008년 1월 29일에 여자 핸드볼 아시아 지역 예선 재경기는 14.9%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1위였고, 그 다음날 치러진 남자 핸드볼 경기 역시 동일 시간대에 열렸던 남자 축구 대표팀의 칠레와의 평가전보다 평균 2%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유재충, 「2008 베이징올림픽 핸드볼 시청자의 동기, 태도 및 시청의도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18권 1호, 2009. 104쪽 참조)
- 5) 스포츠에서 ‘팬십(fanship)’이란 ‘특정한 스포츠에 감정적, 행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 6) 유재충, 「2008 베이징올림픽 핸드볼 시청자의 동기, 태도 및 시청의도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18권 1호, 2009. 103쪽

새로운 시대적 코드를 생산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생순>의 흥행은 단순히 대중매체의 영향력과 스포츠의 산업의 상업성을 넘어,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중들의 정서와 감수성 변화를 함께 의미한다. 즉, <우생순>의 흥행은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에서 한국팀 핸드볼 선수들이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기 때문만도 아니고, 그러한 경기를 실시간으로 전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공중과 TV에서 중계를 했기 때문만도 아니며, 이러한 두 요인을 합친 때문만도 아니다. 90년대 말 구제금융의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가일층 강화된 경쟁 지향적 사회 구조,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에 힘입은 쌍방향적 의사소통 문화, 파편적 정보들이 범람하는 다매체 시대의 정보 과잉 등에 대한 대중들의 열패감과 염증이 아마말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우생순>의 흥행 요소였던 것이다.<sup>7)</sup>

## 2. 새로운 흥행 코드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소재 영화가 대중적으로 크게 흥행한 첫 작품은 1986년에 이장호가 감독한 <이장호의 외인구단><sup>8)</sup>일 것이다. 이 작품은

7) 엘리스 캐시모어는 오늘날 대중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를 현대사회의 예측가능한 일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예측가능한 일이 많아졌으며, 그에 따라 현대인들의 삶은 과거에 비해 훨씬 안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예측가능한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대중들의 욕구가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즉 삶의 일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몰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캐시모어의 이러한 주장은 쉽게 그 진위를 논하기 어렵지만, 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분석했다는 점에 본 논문의 연구방법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엘리스 캐시모어, 정준영 옮김, 『스포츠, 그 열광의 사회학』, 한울, 2001.)

8)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고, 논문이나 평론에서도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개봉한 영화의 원제는 <이장호의 외인구단>이었다. <이장호의 외인구단>은 1983년부터 이듬해까지 출간된 이현세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을 충실하게 재현한 작품이다.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누렸으나, 그 이후에 스포츠 소재 영화의 지속적인 생산이나 대중적 인기를 견인하지는 못했다. 이 영화의 단발성 흥행은 원작 만화의 폭발적 인기에 기댄 장르변용 영화의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작 만화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최대한 그대로 되살렸던 <이장호의 외인구단>이 흥행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원작 내용과 무관한 스토리의 <이장호의 외인구단 2>(1988)가 흥행에 참패했다는 사실은 1편의 흥행 역시 ‘스포츠 영화’로서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인기 만화의 장르변용 영화로서의 성공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sup>9)</sup>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소재의 영화 제작이 봄을 이룬 첫 시기는 광경택 감독의 <챔피언>과 김현석 감독의 <YMCA 야구단>이 개봉되었던 2002년이다. 두 작품은 모두 흥행에서 좋은 기록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대중과 평단으로부터 일정하게 주목받으면서 스포츠 소재 영화의 가능성을 일깨웠다. 이후 김종현 감독의 <슈퍼스타 감사용>(2004), 송해성 감독의 <역도산>(2004), 류승완 감독의 <주먹이 운다>(2005), 정윤철 감독의 <말아톤>(2005), 권수경 감독의 <맨발의 기봉이>(2006) 등이 제작되면서 스포츠 소재 영화는 계속 그 가능성을 모색해 갔다. 하지만 <말아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작품들은 흥행면에서 제작비에도 못미치는 초라한 기록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작품들은 우리의 스포츠 영화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점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직간접적으로 ‘실화’를 소재

---

원작 만화의 인기에 힘입어 원작 만화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최대한 그대로 되살렸던 영화에서 원작의 제목을 바꾼 이유는 확실하지가 않다. 다만 ‘공포’라는 단어가 당시의 군부독재를 상기시킨다고 해서 제목을 변경했다는 추측이 있다.

9) 물론 속편의 흥행 참패는 원작의 흥행에 기댄 저예산 졸속 제작이라는 당시의 영화 제작 관행에서 더 큰 문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장호의 외인구단 2>는 1편에 출연했던 안성기, 이보희 등의 인기배우들이 출연하지 않았다.

로 삼았다는 것이다. <YMCA 야구단> 과 <주먹이 운다>의 실화 관련성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구체적인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았다.<sup>10)</sup>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인식되어 왔던 스포츠 영화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sup>11)</sup>이었다는 어느 평론가의 지적처럼, 실화에서 소재를 취하는 것은 2000년 이후에 제작된 스포츠 영화의 뚜렷한 특징이다. 가공(架空)된 스토리가 범람하는 매체 환경에서 ‘실화’는 다른 허구들과 변별되는 믿음과 감동의 재료가 된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점은 대부분의 작품이 인기 스포츠 종목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챔피언>, <YMCA 야구단>, <슈퍼스타 감사용>, <역도산>, 심지어 <말아톤>까지 모두 인기 스포츠 종목을 다루었다. 야구나 권투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동호회를 중심으로 매년 수만 명의 일반인들이 풀코스를 완주하는 마라톤 역시 인기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역도산>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패전 직후 일본에서 스모나 프로레슬링의 대중적 인기가 높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역시 인기 스포츠를 소재로 취한 것이다.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 영화에서 인기 스포츠를 소재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향이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스포츠의 인기가 곧장 영화로 이어지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위 영화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구체적인 실존인물의 일대기 또는 성장

10) <YMCA 야구단>은 일제시대 때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황성 YMCA 야구단’의 창설 과정을 코믹하게 각색했다는 점에서 사실을 소재로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먹이 운다> 역시 류승완 감독이 일본의 동경 시내에서 돈을 받고 ‘인간 샌드백’이 되어주는 전직 권투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실에서 소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작품은 주인공의 이름과 성격 등이 모두 실체가 아닌 ‘허구’라는 점에서 위에서 열거한 다른 영화들과 차별된다.

11) 황혜진, 「대중서사로서 ‘스포츠 영화’의 가능성과 한계」, 『공연과 리뷰』 66호, 2009. 9. 172쪽

기가 주요 모티프<sup>12)</sup>라는 것이다. 일대기 서사는 대개 비범한 능력과 의지를 지닌 인물이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영웅으로 성장할 때의 장엄함이거나, 또는 안타깝게 그 꿈이 좌절되면서 자아내는 비장함을 감동의 원천으로 삼는다. 여기에 가족애와 우정, 그리고 국가주의 등의 코드가 적당히 혼합되면 스포츠 영화의 일반적 도식이 된다. 이처럼 초라했던 인물의 힘겨운 성장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자나 관객을 몰입시키는 좋은 모티프였지만, <역도산>이나 <챔피언>은 예상 밖의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성장형 드라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제작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2007년 이전에 제작된 영화들이 갖고 있는 위의 특징들을 이해하면 <우생순>이 보여준 담화전략의 의미가 좀더 분명해진다. 우생순은 실화에 바탕을 둔 스포츠 소재 영화라는 점에서는 이전의 작품들과 같은 선상에 위치하지만, 핸드볼이라는 비인기 종목을 다루었으며, 나아가 인물들의 성장기가 아니라 스포츠 정신 자체를 핵심 모티프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전 작품들과 변별된다. <우생순>은 인기 종목의 팬십(fanship)에 기대어 흥행의 외부효과<sup>13)</sup>를 기대할 수도 없었고, 비범한 주인공의 드라마틱한 성장기라는 일반적인 흥행 요소 또한 갖고 있지 않았다. <우생순>의

- 
- 12) ‘모티프’는 ‘작품 전체에 깊이 스며 있으면서도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재’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브루투스’의 케사르 암살에 대한 영화가 있다고 할 때 브루투스나 케사르는 작품의 소재이며, 작품의 주요 모티프는 ‘폭군 살해’가 된다. 이처럼 모티프는 동일한 계열체에서 반복되는 원형적 심상과 관련된 주제문적 개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이재선 엮음, 민음사, 1996)의 엘리자베스 프렌첼(Elisabeth Frenzel) 부분을 참조할 것.
- 13) ‘외부효과’는 특정한 경제활동 중에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이다. 팬십(fanship)에 기대어 흥행의 외부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인기 스포츠 종목을 소재로 영화를 제작했을 때에, 그 영화의 작품성과 무관하게 해당 스포츠 종목을 좋아하는 대중들 때문에 흥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공들은 애초부터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갖춘 국가대표 선수들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생순>은 2002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전이라는 한 편의 경기 자체에 초점을 맞춘 영화이다. 극적인 한순간에 작품의 초점을 모으는 것은 대부분의 서사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우생순>이 독특했던 점은 그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크지 않다는 데에 있다. 올림픽 2연패의 주역이었던 한미숙은 상금을 얻기 위해 대표팀에 합류한 듯이 보이지만, 친구 김혜경이 마련해 준 돈으로 이미 악성 부채를 해결한 상태이다. 우승을 해서 혜경에게 받은 돈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었겠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혜경은 애초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작품이 진행되면서 미숙이 역시 ‘돈’에 대한 더 이상의 집착을 보이지 않는다. 2차레나 이어지는 연장전에서 체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뛰겠다’는 송정란이나, 발목 부상이 악화되면 두 번 다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감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고집하는 장보람 역시 ‘우승’을 통해 대단한 영화를 누리거나 특별한 한(恨)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는 것은 선수로서의 대단한 영예이다. 하지만 <우생순>은 ‘우승의 영예’나 또는 ‘아깝게 우승하지 못한 비장미’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두 차례나 금메달을 땀던 한미숙의 고달프고 비참한 생활은 ‘우승의 영예’를 돋보이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경기에 지고 나서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 ‘아쉽지만 후회는 없다.’, ‘잘 하셨습니다’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다함께 ‘화이팅!’을 외치는 감독과 선수들의 강한 유대감 역시 영화의 주제가 다른 곳에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의 진정한 주제는 작품 마지막에 등장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팀을 실제로 이끌었던 임영철 감독의 인터뷰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은메달이지만 금메달 못지않은 투혼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올림픽에 나오는 대표팀 선수가 마음 놓고 땀 팀이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마지막 연장을 들어가다가…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선수들에게 말했음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울먹이며 임 감독은 고개를 돌린다.)

<우생순>이 영화화 된 직접적 계기가 바로 임영철 감독의 위 인터뷰였음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춘 국가대표였지만 ‘마음 놓고 땀 팀이 없’는 상황이었다. 국내 시즌 경기에서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할인점에서 야채 판매원이 되어야 했던 한미숙의 코믹한 에피소드가 영화의 첫머리를 차지한 것 역시 이러한 영화의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수들은 한 판의 승부로 인생 역전을 꿈꾼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박한 아름다움의 한 순간을 보여준 것이다.<sup>14)</sup>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생순>이 우리 시대의 소위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흥행에 성공한 진짜 이유인 것이다. 이처럼 <우생순>은 우리 영화 사상 최초로 비주류 스포츠를 소재로 삼았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주요한 흥행 코드로 작용하였다.<sup>15)</sup>

14) 광경택 감독의 <챔피언>에서 주인공은 가난한 집이 싫어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여 매혈까지 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는다. 그가 권투를 시작한 것은 몸뚱이 하나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희망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때 <챔피언>에서의 권투 경기는 주인공의 ‘인생역전’을 위한 고통스러운 도구일 뿐,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승부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반해 <우생순>의 주인공들은 경기에서의 승리가 ‘인생역전’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좀더 스포츠 본연의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생순>에서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인물들의 애환이 중요한 모티프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챔피언>의 감독구와 비교했을 때, <우생순>의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경기 자체에 몰입했던 것은 분명하다.

15) ‘비인기 종목’을 다룬 영화 <우생순>이 ‘스포츠 정신 자체’를 모티프로 삼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이를 거꾸로 보자면 인기 종목을 다루고, 인물들의 성장기를 모티프로 삼는다는 것은 영화가 ‘스포츠’ 외부 요소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추었던 비주류 스포츠인들이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가 성공적으로 영화화 된 데에는, 위에서 설명한 주제 의식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성공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이 있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수용자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 소비자들에게 더 효과적이며, 영화 관람 시에 영화의 선택권은 대체로 여성들에게 있다. 그 동안의 스포츠 영화가 남성 주인공 위주였으며, 남성이 잘하는 종목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우생순>은 여성 주인공들이 펼치는 여성 스포츠였다. 복수의 여성 주인공들이 펼치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생순>의 스토리텔링 효과를 극대화시켜 작품의 흥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 <우생순>의 흥행은 온라인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매체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다양성을 화두로 하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의 발달로 팬들은 원하는 스포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통해 중계를 보며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경기 동영상을 편집해 돌려보는 모습도 익숙하다. 팬들은 단순히 ‘보는 스포츠’를 넘어 경기를 분석하고,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와 재미난 표정들을 공유하며 즐긴다.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팬들의 욕구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를 보도하는 언론도 결과만큼 감동과 이야기에 주목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재생산한다.<sup>16)</sup> 또한 스토리텔링은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라는 산업적 측면 이외에도 세계의 제 현상에 대한 과편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

를 흥행 코드로 삼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6) 이승준, 「‘승패’ 넘어 ‘감동과 이야기’로, 한겨레신문 2010. 2.7.

스토리텔링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광범위한 요구는 삶의 전체적 파악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인식론적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정보의 홍수 앞에 절망한 사람들은 논리적·연역적 사유의 한계를 절감하고 단순한 정보보다 사건을 겪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 한 번 걸러진 담화, 즉 스토리를 원하게 된다. 말하자면 서사적·상징적 세계를 통해 삶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감성적·직관적 사유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sup>17)</sup>

사회적 관계와 절연한 채 오로지 승패에만 집중하던 스포츠의 세계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나서 사회적 관계망을 획득하고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매개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다.

### 3. 재현의 장애/강화 요소

‘한국에서 제작되는 스포츠 관련 영화가 실화에 기반한다는 관습이 형성되고 있다.’<sup>18)</sup>는 어느 평론가의 지적처럼 <우생순>은 실제 사실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우생순>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결승전이 배경인 영화로 세계최강인 덴마크에 맞서 9번의 동점과 2번의 연장전, 마지막 승부 던지기까지 128분 동안 벌어진 접전 속에서 결국은 패배로 막을 내린 경기가 작품의 주요 소재이다. 하지만 이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영화적 재현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재미있게 풀었을까’라는 관객들의 기대심리를 충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생순>의 흥행에 대한 분석은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 스타 배우들의 확실한 변신, 실화가 지닌 강력

17) 허만옥, 문화콘텐츠에서의 디지털스토리텔링 양상과 방향 연구, 『우리문화연구 23집』, 우리문화회, 2008. 2.

18) 황혜진, 「대중서사로서 ‘스포츠 영화’의 가능성과 한계」, 『공연과 리뷰』 66호, 2009. 9. 172쪽

한 위력, 비인기 종목을 다룬 모험적 시도에 대한 인정, 아줌마 정서의 승리, 비수기 틈새시장 공략 성공 등 다양하지만 스포츠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보다는 경기 장면의 리얼리티와 박진감이 떨어져 영화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지적하는 인터넷 블로거들의 평가는 간혹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지적은 영화적 성공과 실패를 떠나 스포츠 영화가 나올 때마다 반복된다. 제대로 재현된 스포츠 장면 하나 없는 스포츠 드라마는 감동의 진폭이 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불과 4년이라는 짧은 시간적 격차로 올림픽 때의 감동적인 핸드볼 경기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영화의 경기 장면 재연은 리얼리티를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항존한다.

그렇다면 <우생순>이 영화적 재현에 있어서 이러한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대중적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담화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우생순>이 영화의 서두에서 “이 영화는 2004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전을 소재로 제작되었지만, 등장인물과 세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자막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우생순>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나 실화 그 자체에 근거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임순례 감독은 처음부터 스포츠를 소재로 한 휴먼 드라마를 만들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투혼과 스코어 등은 실제 사실을 그대로 차용했고, 많은 자료를 모으고 실제 출전했던 선수들의 인터뷰를 참고했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들은 새롭게 창조했다.<sup>19)</sup> 이처럼 <우생순>은 경기의 리얼리티나 디테일은 살리지 못했지만, 역동적인 경기 장면 대신에 각 캐릭터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경기가 줄 수 있는 실망감을 보완하는 담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래서 온 국민이 결말을 아는

19) 이동진, 『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 그 영화의 비밀』, 예담, 2009, 617-662쪽, 임순례 감독과의 인터뷰 부분 참고

영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감동을 받고 영화관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우생순>은 실제와 허구를 효과적으로 배합함으로써 스포츠영화의 장점과 드라마로서의 감동을 잘 살려낸 것이다.

한편 <우생순>은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영화라는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관객동원에 성공할 수 있는 강화요소 또한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생순>의 개봉이 핸드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하던 때였다는 점이다. 여자 핸드볼은 2008년 북경 아시안 게임 지역 예선에서 중동의 편파 판정 때문에 제대로 경기를 갖지 못했고, 그 결과 쿠웨이트에 밀려서 올림픽 진출 티켓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편파 판정에 격분한 국민들의 핸드볼에 대한 관심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 개봉 시기가 절묘했던 또 한 가지는 경쟁 영화의 부재였다. <우생순>의 배급사 싸이더스FNH 관계자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개봉된 10일을 전후해서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 복합 상영관을 갖고 있는 배급사 투자 영화의 개봉이 없었다. 그 만큼 많은 스크린을 확보할 수 있었다.”<sup>20)</sup>고 밝힌 바 있다.

<우생순>이 지닌 두 번째 강화요소는 영화의 스토리를 스포츠 선수에 국한시키지 않고 비주류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임순례 감독은 단순히 핸드볼 선수에 대한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적인 맥락에서 작품을 비주류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시킴으로써 영화적 성공을 이루어내었다. 그녀는 대중영화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맥락에서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실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화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아졌고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커졌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을 대신해 돈을 벌어야 하는 미숙, 이혼한 혜경,

20) 이경호, 「‘우생순’이 흥행에 성공한 아주 특별한 이유」, 마이데일리, 2008. 1.18.

불임인 정란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덴마크만이 아닌 그들을 억압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반적인 스포츠 영화와 달리 인물 각각의 사연이 올림픽 결승전과 국위선양이라는 최종목표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생생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생순>이 지닌 미덕 중 하나이다.

그동안의 스포츠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면이 있었다. ‘스포츠는 각기 다른 개성과 이해를 지닌 이질적인 현대인들을 공동체로 융화하여 화합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스포츠 활동에는 참가자 개인을 그 팀이나 클럽으로 융화시키기에 충분하여, 인간관계의 상호결속을 촉매한다. 공동체 의식은 팀이나 클럽 같은 소규모 형태의 집단 뿐만 아니라 학교, 시, 도, 나아가서는 국가와 같은 대규모 집단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동일화는 더 큰 규모의 공동체를 포함하는 융화와 확산을 가져옴으로써 애교심, 애향심,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킨다.’<sup>21)</sup> 그러나 <우생순>은 국가 명예를 높이는 애국심 이전에 이들의 절박한 실존적 이유, 즉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우생순>은 근대 국가의 동원적 이데올로기를 무화시키고, 그 대신에 스포츠 정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sup>22)</sup>는 다소 진부해 보이는 슬로건의 가치를 되새기게 해준다. 스포츠 영화는 오랫동안 한 국가의 영광을 위한 선수들의 희생과 성취 또는 가족을 위해 뛰는 가족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점차 스포츠 영화는 애국주의나 민족주의, 가족주의 등의 이데올로기 대신 스포츠 본연의 속성과 즐거움을 자아내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오늘날 스포츠는 단지 보고 즐기는 운동을 넘어 스포츠를 통해 관통하는 다양한 문화담론의 생성

21) 정영남, 『미디어스포츠』, 대한미디어, 2008, 335쪽

22) 주디스 스와들링, 『올림픽 2780년 역사』, 김병화 옮김, 효형출판사, 2005, 186쪽

장이기도 하다. 때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합하는 융합의 장이 되어 변화의 주역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대중을 이끄는 집단 권력이 되기도 하는 스포츠는 현대사회를 뒤흔드는 강력한 문화 생산/소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성적 중심, 투기·단체종목서 비인기종목, 감동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는 이제 결과 이상으로 과정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스포츠를 둘러싼 매체환경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관람객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창조자에 가깝다. ‘네티즌과 동일한 관람객들은 경기를 보고 바로 감상평을 올리고 토론을 한다. 관심 있는 선수의 미니홈피를 찾아가 직접 자신의 소감을 전달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개인 미디어 열풍이 스포츠와 그것을 접하는 개인의 관계도 바꿔 놓았다. 관람객은 적극적으로 선수들의 드라마를 써내려간다.’<sup>23)</sup> 이는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 스포츠’로 바뀌는 최근의 트렌드를 잘 보여준다.

<우생순>을 비롯하여 비주류 종목을 소재로 삼은 최근의 스포츠 영화들은 이기는 결말이 아닌 모르는 결말, 혹은 지는 결말을 보여준다. 최근 몇 년 사이 대중들은 경기의 승패와 기록 이상으로 경기 외적인 ‘감동과 이야기, 재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창섭<sup>24)</sup>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 못지않게 이야깃거리(story telling)가 있어야 되는 전반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포츠도 이야깃거리가 관전 포인트’<sup>25)</sup>가 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 스포츠보다 스포츠 영화에 사람들은

23) 강유정, 「각본없는 인생드라마」, 올림픽 서울경제 2008. 8.23.

24) 충남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더 쉽게 감동한다. 영화는 스포츠와 인생을 하나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생순>은 휴먼 드라마이며 여기에 스포츠가 가미되었고 실화가 주는 감동이 어우러져 대중들의 공감을 살 수 있었던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우생순>은 스포츠와 스토리의 만남을 통해 실패한 경기에도 성공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우생순>은 ‘금메달을 딸 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이다. 이 영화는 승리 또는 신기록보다 도전하는 의지와 스포츠를 통한 삶의 변화 그 자체가 오히려 의미 있음을 말하고 있다. 최선을 다한다면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전은 반드시 자신의 세계를 넓히게 마련이고,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 4. 비주류 스포츠의 사회학

<우생순>에는 비주류 스포츠를 하는 주변부 인생들이 등장한다. 영화 <세 친구>와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을 통해 주변부 삶의 고단한 일상을 담아냈던 임순례 감독은 "역설적이지만 당시 금메달을 땀다면, 이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sup>26)</sup>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임순례 감독은 서울과 바르셀로나에서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던 여자 핸드볼 팀의 승전보를 화면에 담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그랬더라면 오늘날 <우생순>의 감동을 되살릴 수 있었을까? <국가대표>(2009)를 제작해 천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김용화 감독은 “관객들은 우리사회의 소시민이며 스스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인기종목 선수들을 통해 대리

25) 이승준, 「‘승패’ 넘어 ‘감동과 이야기’로」, 한겨레신문 2010. 2.7.

26) 나영준, 「우리 생애 최고의 눈물, 기쁘게 흘리세요」, 오마이뉴스 2008. 1.24.



만족을 느낍니다.”<sup>27)</sup>라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실업난,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들 작품이 일종의 ‘희망 지침서’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 스포츠 영화가 비인기 종목에서 뛰는 못난 사람들을 소재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와 감동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기 종목 스타선수들의 이야기보다, 실패자들의 역경 극복 스토리가 갖는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스포츠 영화에는 인생을 집약한 드라마틱한 시간과 승부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는 비인기종목이고, 선수들이 보잘것 없고, 무시당하고, 상처가 많은 존재일 수록 더욱 감동적이다. 강유정은 “과거처럼 1인 영웅담이 아니라 마이너리티 주인공들이 꿈을 이뤄 가는 스포츠 영화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며 ‘힘겨운 삶에 지쳐 있는 우리 관객들이 동질감을 느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하기 때문’<sup>28)</sup>이라고 말했다. <우생순>은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췄음에도 생계를 걱정하느라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한미숙, 1인자의 그늘에 가려져 인정받지 못했던 김혜경, 경기를 위해 생리조절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했다가 불임판정을 받은 송정란 등 선수 개개인의 사연 많은 인생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영화 전반부 주인공들이 인간적으로 처해진 상황과 좌절,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객들은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후반부 덴마크와의 결승전 장면에서 더욱 짜릿한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우생순>은 1등이 아니어도 최선을 다한 자들이 승리자라고 이야기한다. 때문에 스포츠 경기 자체에 초점을 맞춘 본격 스포츠 영화이면서도 동시에 휴먼 드라마인 것이다.

<우생순>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올림픽을 통해 은메달을 획득했지만 삶의 무게는 하나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극 초반에 비해 중반의 상황은

27) 이수영, 「스크린 흠뻑 적신 진한 땀방울」, 일요서울 2009. 10.13.

28) 강유정, 「승자만 있는 스포츠는 없다」, 조선일보 2009. 4.30.

더욱 악화되었다. 경기에도 졌다. 그런데도 이 영화는 결코 슬픔에 젖는 것으로 어둡게 끝나지 않는다. 극적인 승리도, 인생역전도 없다. 오히려 성공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쓸쓸함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를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 이는 “마지막 한 방울의 땀과 호흡까지 쏟아내며 최선을 다한 자에게 진정한 승리가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실을 말하고 싶다”<sup>29)</sup>는 임순례의 의도가 투영된 결과이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한 스포츠 영화가 아니다. 국가의 명예를 높이는 애국심 이전에 이들의 절박한 실존적 이유, 그러니까 세상에 제 3의 성이라고 무시하는 아줌마 자신의 삶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공을 주고받는 코트는 어느 순간 인생의 시험장이 되어 버린다.<sup>30)</sup>

결국 <우생순>은 스포츠와 인생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담화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관객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영화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스포츠의 존재 가치는 승리하거나 기록을 경신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스포츠 영화들 대부분은 극적인 승리로 끝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패배로 감동을 극대화한다.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의 99%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주인공의 인생 드라마가 담겨져 있다. 임순례 감독은 인터뷰에서 “지는 경기를 하는, 인기 없는 경기에 목숨을 거는 여자들을 통해 최선을 다했을 때의 감동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1등이 주는 감동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기쁨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시되는 것들, 그 무시되는 소중한 가치를 살펴보고 싶었다.”<sup>31)</sup>고 한다. 감독의 이러한 의도처럼 <우생순>을 관람한

29) 이동진, 『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 그 영화의 비밀』, 예담, 2009, 617-662쪽 임순례 감독과의 인터뷰 참고

30) 유지나, 「‘틀에 박힌 영화에 날린 거침없는 하이킥’, 진찬일 엮음, 『2009 작가 선정환 오늘의 영화』, 작가, 2009, 97쪽

31) 오동진, 『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 그 영화의 비밀』, 예담, 2009, 617쪽

관객들은 비록 비주류 인생이지만 최선을 다해 부딪쳐보는 주인공들에게서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낀 것이다. <우생순>의 숨막히는 마지막 결승전 승부 던지기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적극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승고미를 획득한 것이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슛을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이 꼭 슛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인간의 의지와 함께 비장의 미’<sup>32)</sup>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비장미는 <우생순>을 감동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다.

임순례의 전작들이 비주류의 아픔과 고뇌를 다소 무겁게 그려냄으로써 작품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우생순’은 ‘공감’에 초점을 둬으로써 대중성을 획득했다. 물론 억지로 감동을 짜내기 위해 주인공의 인생을 애써 아프게 포장하지 않았다. 화려한 영웅담과 극적인 감동에 치중하기보다 주인공 하나하나의 아픔과 상처를 조명해 공감을 얻어냈다. 세상은 일등만 기억한다는 천박한 경쟁논리로 반인간적 인생철학을 유포하는 세태 속에서 위대한 패배 속에 담긴 값진 인생드라마가 삶에 더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이 영화는 깨우쳐 준 것이다.<sup>33)</sup> 결승전이 무승부로 끝난 후 감독 안승필이 승부 던지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이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한국선수들의 아름다운 실패는 비장한 아름다움을 발산하게 되었고 이 비장미가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이다.

32) 육정학, 「영화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의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표현적 의미 고찰」, 『영화연구』 38호, 한국영화학회, 2008, 12, 357쪽

33) 유지나, 「‘뜰에 박힌 영화에 날린 거침없는 하이킥」, 진찬일 엮음, 『2009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 작가, 2009, 92쪽

## 5. 결론

스포츠 영화는 오랫동안 충무로의 비인기 장르였다. 하지만 <우생순>은 ‘망하는 지름길’로 통했던 스포츠 영화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스포츠 영화에 대한 계속적 투자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오늘날의 스포츠가 점증하는 대중매체의 지배적 영향력에 놓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공중과 방송국의 가족 프로그램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야구 경기 연장전에서 감독이 투수에서 속전속결을 주문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어 버렸다. 감동적인 올림픽 경기가 TV를 통해 중계되어 대중들에게 각인되지 않았다면 <우생순>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우생순>의 흥행에 힘입어 한 국가의 비인기종목 스포츠가 갑자기 대중적 사랑을 받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덧붙여 <우생순>의 성공은 작품 내적인 미덕 이상으로 작품 외적인 요인이 컸다. 가장 큰 외적 요인은 매체의 발달에 따른 대중들의 정서와 감수성의 변화이다. 이제 대중들은 승리하지 않은 경기를 보면서도 쿨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스포츠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줄 아는 지혜도 갖게 되었다. 대중매체의 성장과 함께 스포츠는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또 다른 대중문화의 총아인 영화와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생순>은 ‘스포츠 문화’와 ‘영상 문화’가 만나 서로를 상생시킨 매우 성공적인 사례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임순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2007  
김용화, <국가대표>, 2009  
박건용, <킹콩을 들다>, 2009  
김현석, <YMCA 야구단>, 2002  
정윤철, <말아톤>, 2005  
류승완, <주먹이 운다>, 2005  
김중현, <슈퍼스타 감사용>, 2004  
송해성, <역도산>, 2004  
곽경택, <챔피언>, 2002  
이장호, <공포의 외인구단>, 1986  
<2002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전>, KBS

### 2. 논문과 단행본

- 유재충, 「2008 베이징올림픽 핸드볼 시청자의 동기, 태도 및 시청의도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18권 1호, 2009, 101-110쪽.  
유지나, 「‘틀에 박힌 영화에 날린 거침없는 하이킥」, 전찬일 엮음, 『2009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영화』, 작가, 2009.  
육정학, 「영화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의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표현적 의미고찰」, 『영화연구』 38호, 한국영화학회, 2008, 12, 341-370쪽.  
이동진, 『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 그 영화의 비밀』, 예담, 2009.  
이재선 엮음,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정영남, 『미디어스포츠』, 대한미디어, 2008.  
허만욱, 「문화콘텐츠에서의 디지털스토리텔링 양상과 방향 연구」, 『우리문화연구』 23집, 우리문화회, 2008. 2, 299-325쪽.  
황혜진, 「대중서사로서 ‘스포츠 영화’의 가능성과 한계」, 공연과 리뷰 66호, 2009. 9, 170-176쪽.  
엘리스 캐시모어, 정준영 옮김, 『스포츠, 그 열광의 사회학』, 한울, 2001.  
जू디스 스와들링, 『올림픽 2780년 역사』, 김병화 옮김, 효형출판사, 2005.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 구조』, 민음사, 1989.

### 3. 신문기사

강유정, 「각본없는 인생드라마」, 올림픽 서울경제 2008. 8.23.

강유정, 「승자만 있는 스포츠는 없다」, 조선일보 2009. 4.30.

나영준, 「우리 생애 최고의 눈물, 기쁘게 흘리세요」, 오마이뉴스 2008. 1.24.

이경호, 「‘우생순’이 흥행에 성공한 이주 특별한 이유」, 마이데일리, 2008. 1.18.

이수영, 「스크린 흠뻑 적신 진한 땀방울」, 일요서울 2009. 10.13.

이승준, 「‘승패’ 넘어 ‘감동과 이야기’로」, 한겨레신문 2010. 2.7.

## Abstract

### Research on Discourse Strategy in Sports Films

*-Analysis of the Korean Movie*

*<Forever the Moment> Uri saengae choego-ui sungan-*

Park, Sang-Min · Jung, Soo-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course strategy in movies about sports events. ‘Movies’ and ‘Sports’ are two different forms of popular culture, but share some similarities as well.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possibilities arising from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cultural modes.

Korean movies about sports began to be regularly produced starting in 2002, but it wasn't until 2008 that such movies achieved box office success. The movie that broke through was *<Forever the Moment>*, *Uri saengae choego-ui sungan*. This film was based on a true story like its other sports-themed predecessors, but its discourse strategy unfolded quite differently. The film focused on a non-mainstream sport and didn't focus on one protagonist-hero depicted biographically from their youth. Instead, there were a multitude of protagonists who added layers of depth to the story with their everyday personal issues.

These discourse strategies are the hallmark of media such as the Internet, cable TV and other changing media environments which seek to satisfy the public's psychological curiosity about the personal lives of characters. This provides a sort of comfort for modern viewers who may feel anxiety about the everyday prospect of not being able to fit into the mainstream. After the success of *<Forever the Moment>*, subsequent

sports-themed movies such as <*Lifting King Kong*> and <*Jump*> followed this formula to great effect, achieving box office success as well. Furthermore, unlike previous formulaic sports movies in which the protagonist invariably overcame personal challenges to rise in the world through the medium of sports, meaningful changes in discourse style expanded the role of sports movies so that they could engage viewers through conveying unalloyed athletic spirit. (key words : Sports Films, Forever the Moment, discourse strategy, non-mainstream sport, Lifting King Kong, Jump, athletic spirit)

▮ 위 논문은 2010년 04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0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